

[보도자료]

2014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0월 20일 (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순서

- 발언 1.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발언 2.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3. 공공운수 노동조합
- 발언 4. 희망연대 노동조합
- 발언 5.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큰걸음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첨부1]

2014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 및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세부 내용

1. 기조와 방향

1) 2014년 비정규노동자 투쟁 총화

○ 조직된 비정규직사업장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의 직접 고용,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간접고용 주체단위와 연대단체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투쟁과 연대로 함께하고 있음. 당면하여 투쟁하고 있는 씨엔엠, 티브로드, SK- LG비정규노동자, 인천공항, 제조업사업장 비정규·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전선구축과 연대를 결의하는 자리.

○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학습지노조에 대한 8.18 법원판결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배제하기위한 기득권층의 의도를 알려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조차 부정되는 현실을 폭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시간제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2) 2014년 하반기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 대책규탄

○ 박근혜 정권 새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기조로 7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민생안정의 주요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서민생활 안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포장일뿐 파견직종 확대와 고령층 파견대상 확대하기위한 의도가 숨어있음.

○ 정부는 10월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12월 중에 추진한다는 입장, 정부 종합대책 발표를 전후하여 기만적 정부 종합대책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총궐기의 날을 배치, 대정부 투쟁선포

2. 슬로건

‘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큰 걸음’

3. 요구와 목표

핵심요구	1)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3) 저임금 비정규정규직 확산하는 시간제 확대 중단, 박근혜 퇴진
세부요구 와 목표	1) 사내하도급,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쟁취 2) 공공 및 민간부문 시간제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3) 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 전환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확대 4)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금지 5)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6)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노조파괴 중단 7)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퇴직금 귀국후 수령제 폐지 8) 호봉제 전면실시 9) 기만적인 정부 비정규종합대책 폐기

4. 명칭

‘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5. 개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종교 등 비정규직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단체들과 서울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씨엔엠지부, 케이블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지부, SK브로드밴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분회, 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어린이분회 태원비엠씨, 충북평등지부 청주대지회, 대전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 광주전남본부 한수원비정규직지회, 화물연대경남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쌍용차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
룡전자분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등 현재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조
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10월 25일 오후 5시,
서울 MBK(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연다.

- 일시 : 2014년 10월 25일(토) 17시
- 장소 :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 조직목표 : 5,000명

<순서>

- 집단공연
- 민중의례
- 대회사 : 신승철 위원장
- 이용석 열사상 시상 및 수상
- 연대사 : 예비노동자(학생), 세월호 가족
- 비정규부문별 현장발언 :

서울본부 (서울희망연대노조 5개지부)
전국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노조
금속사내하청노동자
여성노동자
유통서비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기계, 화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청년노동자

- 상징의식
- 결의문 낭독
- 집단공연

※비정규직 총궐기의 날 가맹산하 사전대회 현황

단위	사전대회	시간 및 장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	13시, 서울역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13시, 서울도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15시, 파이낸스빌딩
금속노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5시, 서울도심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	15:30, 영풍문고

5. 비정규투쟁 주간

1) 기초

-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비정규투쟁 집중
- 간접고용, 초단시간,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및 대책을 집중함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공세적 대응
- 비정규직 투쟁단위들과의 연대 및 공동투쟁 전개

2) 개요

○ 일시 : 10.20~25일(일주일)

일시	주제
10.20(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선포 기자회견 11시. 광화문광장

	기만적 비정규대책 비판! 비정규직없는 총복 만들기 투쟁선포기자회견 11시. 충북도청
10.21(화)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캠페인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16개 전국 시·도청)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비판 및 대안 토론회 16시. 공공운수노조
10.22(수)	비정규 사업장 투쟁문화제 19:30. 여의도LG 트위터타워
	이야기한마당-‘노년... 그리고 간병·요양 노동자의 만남’ 15시. 탑골공원
10.23(목)	시간제일자리 실태증언 및 기자회견 10시.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현장보고(증언) 대회 및 간접고용사업장 대표자 기자회견 11시. 국회정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역 집중 결의대회 17:30. 서울교육청 앞
	충북비정규직노동자증언대회 17시. 청주대 본관앞

※ 10월 29일 10-18시 정부의 비정규 대책 비판 및 민주노총 대안 및 대응 종합 토론회 (국회)

※ 문의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 석권호 (010-5281-1605)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최정우 (010-4723-3793)

[첨부2] 기자회견문

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큰 걸음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투쟁주간 선포

비정규직 노동은 우리 사회의 빈곤과 차별의 가장 큰 원인이자 반인간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비정규직은 야만적 퇴행 체제인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의 최대 결과물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빈곤, 차별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던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계약해지 직전 2년간 일하면서 4개월, 6개월, 2개월마다 모두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썼다. 또한 그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한 성추행도 견뎌야 했다.

누가 스물네 살 청춘의 나이인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 과 목숨을 빼앗아 갔는가?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다.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아들들 미안’ 이라는 유서를 남기로 세상을 떠나려 했다. 모욕을 참으며 최저임금도 못받는 그리고 용역업체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절규가 들린다.

2013년 영업이익 8조 3,155억 2014년 사내유보금 113조 9천억 원 그러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0명 우리나라 5대 재벌인 현대자동차다. 이에 한술 더 떠 사내하청 노조간부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 대 재벌기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세상은 내게 왜 이럴까? 누구를 위해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 왔을까?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 서 있을 수조차 없다. SK브로드밴드의 유니폼을 입고 SK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하며 SK브로드밴드의 지시를 받고 모든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상은 SK브로드밴드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업체에서 봉급을 받고 있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통신, 케이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9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인천국제공항 전체 노동자 7천 명 중 6천명이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업체를 변경할 때 마다 다시 신입사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연차는 물론 경력도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직급으로 일하게 된다.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어떻게 회사를 믿고 안전에 힘쓸 수 있겠는가?

구호한번에 100만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벽보나 현수막을 게시해도 100만원이다. 건국대에서 주차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기에 급급하다.

비정규직 철폐 이것은 지난 15여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우리사회에 각인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불법, 탈법, 부당해고 말도 안 되는 저임금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우리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노동 유연화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듯한 정책방향을 표명하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안사업장의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대책만 발표하는 공염불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주행의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돈과 이윤중심 재벌의 탐욕 속에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제를 거부하고 이 땅 민

중의 희망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체제의 폐기를 위한 큰 걸음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비정규 투쟁 주간에 있을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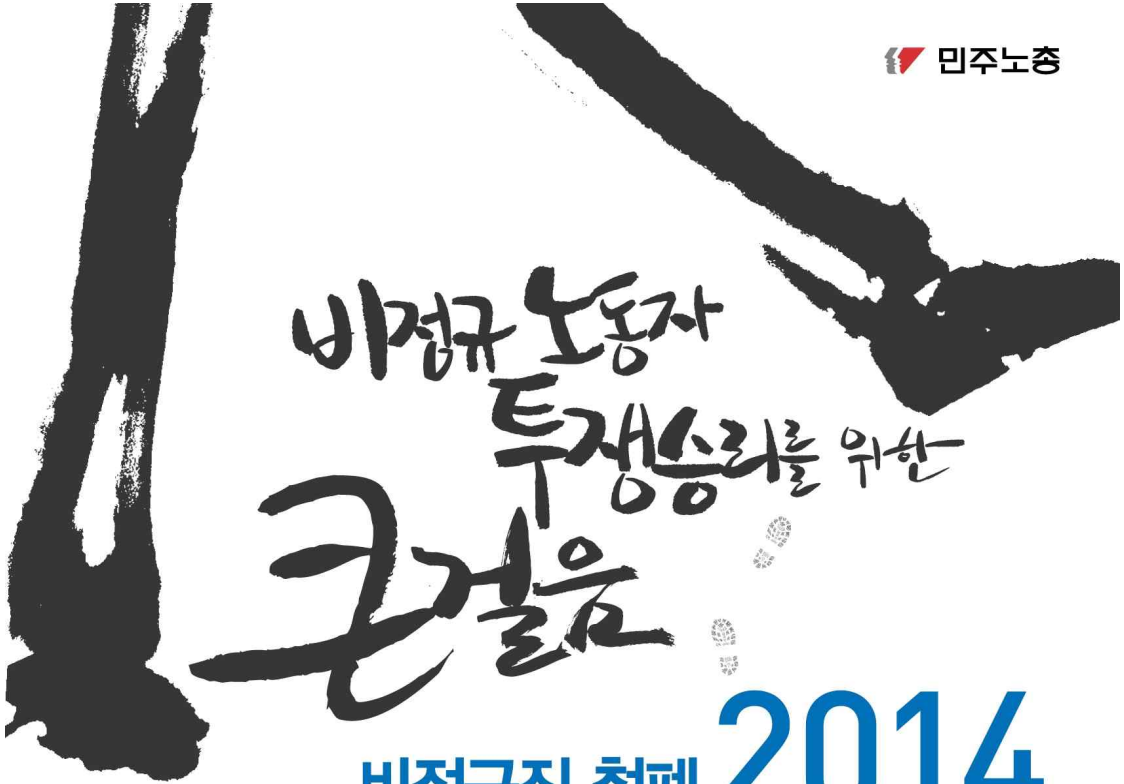
2014년 10월 20일

비정규직 투쟁승리의 큰 걸음
2014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비정규직 철폐 2014
투쟁주간선포기자회견

일시 2014년 10월 20일(월)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세종동상 앞) |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비정규직 철폐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일시_ 2014년 10월 25일(토) 17시

장소_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핵심요구

- ①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②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정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 ③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하는 시간제 확대 중단, 박근혜 퇴진

요구와 목표

- ① 사내하도급, 간접고용노동자 원형사용자성 행취
- ② 공공 및 민간부문 시간제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 ③ 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 전환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확대
- ④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금지
- ⑤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 ⑥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노조파괴 중단
- ⑦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퇴직금 귀국후 수령제 폐지
- ⑧ 호봉제 전면실시
- ⑨ 가만적인 정부 비정규종합대책 폐기

* 비정규 철폐 주간행사 안내 (10월 20~24일)

일시	주제
10.20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선로 기자회견 11시 평화문광장 가만치 비정규대책 비만 비정규직없는 충북 만들기 투쟁선로기자회견 11시 충북도청
10.21	공공부문비정규직 범·제도 개선 캠페인 전국동시디발 1인시위 (16개 전주시·도청)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비만 및 대안 토론회 16시 공공운수노조
10.22	이아자(한미당, 노년, 그리고 간병 요양 노동자의 만남) 15시 탑골공원 비정규 사업장 투쟁문화제 19:30 여의도GS아육(가)
10.23	시간제 일자리 실태 중언 및 기자회견 10시 간접고용노동자 현장보고(중언) 대회 및 간접고용사업장 대표자 기자회견 11시 국회정문 충북비정규직노동자중언대회 17시 청주대 분관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지역 집중 결의대회 17:30 서울교육청 앞

정부의 비정규 대책 비판 및 민주노총 대안 및 대응 종합 토론회 10월 29일 10~18시 국회한강기내관



사전대회

단위	사전대회	시간 및 장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	13시 서울역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뱅크충돌신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13시 서울도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15시 파이낸스빌딩
금속노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5시 서울도심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박근혜 대통령 악용이행 촉구 결의대회	15:30 영풍문고

